

영혼의 뿌리 찾아 떠난 성찰적 여행기

'안티꾸스' 대표 김준목씨가 뽑은
괴테의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괴테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를 찾은 것은 결국 자기 사상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역사 속으로의 여행, 여행을 통한 자아 찾기였습니다.”

서양고서사이트 '안티꾸스' (www.antiquus.co.kr)를 운영하는 김준목씨(39)가 고서와 인연을 맺은 건 평범한 샐러리맨 시절인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하나 둘 고서를 모았는데, 고서가 뿔어내는 매력에 푹 빠져 2년 전부터는 아예 고서수집가로 나섰다. 그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괴테의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박영구, 푸른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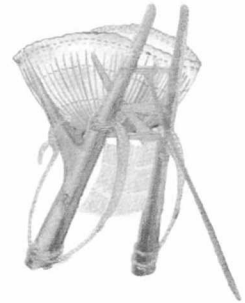
“이 책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1년 9개월 동안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나폴리 등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며 남긴 기록입니다. 일기형식인 만큼 그 시절 괴테의 삶과 예술적 체험, 예술가로서의 변모과정이 진솔하게 녹아 있죠.”

그가 이 책을 만난 건 마침 고서 수집을 위해 이탈리아 여행을 떠날 때였다. 이 책을 만난 뒤 “과거의 것을 문제삼지 않고 현재의 것을 인식할 수는 없으며, 이 양자를 비교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문장은 고서를 찾아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의 '좌우명' 이 됐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 내면적 성장을 거듭하는 예술가의 고뇌가 인상적이었죠. 괴테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를 찾은 건 결국 자기 사상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역사 속으로의 여행, 여행을 통한 자아 찾기였습니다.”

그는 남달리 책을 사랑한다. 특히 영혼이 살아 숨쉬는 책들을 사랑한다. 한권의 책과 마주한다는 것은 책을 쓴 사람의 영혼과 대화하는 일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어쩌면 그가 고서수집가가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고서사이트를 연 것도 더 많은 사람들과 고졸한 '영혼의 향기' 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고서는 마땅히 보존돼야 하지만, 책이 담고 있는 지식은 누구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고서를 대하는 그의 지론이다.

그에겐 또 '카사노비스트'란 독특한 명함도 따라붙는다. 카사노비스트는 전세계 2백여명의 카사노바 연구가에게 헌정된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선 그가 유일하다. 그가 한갓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치부돼버린 카사노바를 당대의 내로라하는 지식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어느 날 손에 들어온 빛 바랜 책 한권, 《카사노바 자서전》을 만나면서부터다. 10월쯤 그동안의 연구자료를 모아 책도 펴낼 예정이다. -박옥순 기자



「완자무늬」는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 집단입니다.

단행본 · 아동물 시리즈 기획 · 편집
자서전 · 회고록 집필 대행
사사(社史) · 사보(社報) · 편집대행

곰삭은 경륜과 톡톡 튀는 끼가
한데 어울려
「약」 소리 터지는 결과물을
창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시오.

E-mail : wanja3533@hanmail.net
전 화 : 322-3532~3
팩 스 : 322-3534